

일상과 시선의 미학

일상에서 마주치는 건축, 구조, 사물의 한 단면이 새로워졌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평범한 것을 아름답게 그려내는 독일 출신의 화가 잉고 바움가르텐의 그림을 통해서. 화폭 너머로 건네는 그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에 눈길이 머문다.

잉고 바움가르텐

진행 임혜신 글 윤미진 사진 송시영



잉고 바움가르텐의 작업실. 어항 위 물건은 물고기 밥을 자동으로 주는 발명품으로, 재활용품으로 만들었다.



페인팅 나이프들. 그는 색감을 중요하게 생각해 색을 구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쓴다.

그는 자신의 작품들을 비교하며 더 나은 색감, 구도 등을 고민한다.



스케치 노트. 길을 걷다 눈에 띄는 모티프나 구조를 기록한다.

작업실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품 외에도 식물, 물고기, 모빌 등 눈에 띄는 것이 많네요. 어떻게 사용하시는 공간인지 궁금합니다.

이 스튜디오는 제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에요. 작업 공간이죠. 저는 실용성을 중시해서 업무에 필요한 것, 작업용 도구와 소재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야 하니 작업과 상관없어도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다 두죠.

작업과 상관없는 물건이라면.

카메라나 식물, 물고기, 블록, 모빌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전혀 상관없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카메라는 길을 걷다 시선을 끄는 사물이나 공간을 마주했을 때 기록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생물학에 관심이 많아 식물을 키우며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작품에 등장한 적도 있죠. 제가 없어도 시간에 맞춰 물고기 먹이를 줄 수 있는 도구는 직접 만든 거예요. 모빌은 학생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모양과 빛을 관찰하며 각자 창의적으로 자신만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죠.

교수님의 작품에서 ‘공간’은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요, 1970~80년대 한국의 양육이나 건물 옥상의 환풍기, 난간 등 일상적 공간에서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평범하지만 전체 외관이나 주변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물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빌딩 꼭대기, 건물 외부 계단, 문손잡이, 변화한 도시 지하철 입구 등 제가 화폭에 담은 것들은 독특한 미적 감성과 분위기를 지녔지요. 건축물은 한 사회의 문화와 정서의 집약체입니다. 구성과 색채, 비례감 등을 재구성해 평범한 주변 공간에 새로운 미학적 가치를 부여하려 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 일상이 새로운 시선으로 투영된다면 더없이 행복하겠지요.

그간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공간에 삶이 녹아 있다는 생각을 ‘시각인류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저는 인류가 만들어낸 세상의 외형과 의도, 기능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의 발전 양상과 함께 남겨진 족적들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데 큰 흥미를 느껴요. ‘시각인류학’이라는 개념은 이 사회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회를 과학적으로 관찰해 시각적, 미학적 측면을 연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이 시각 예술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 장소와 공간을 그림으로 재구성하며 바라본 한국의 모습은 어떤가요?

한국 사회는 매우 역동적입니다. 고향인 독일을 떠난 지 이제 12년이 돼가는데, 그간의 변화는 독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요. 이런 역동적인 변화는 분명 매력적이지만 이를 주도하는 동인은 대개 상업적 이익입니다. 이 때문에 도시 경관뿐 아니라 삶의 여건과 방식도 크게 바뀌고 있죠. 이런 진보는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큰 짐을 지웁니다. 전환 과정에서 수많은 문화적, 전통적 가치가 사라지니까요.

‘진보가 짐을 지운다’는 말의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신다면요.

사회적 측면에서는 한국적인 것들이 빠르게 사라지거나 획일화되는 현상을 말할 수 있고, 개인에게는 변화에 맞춰 행동하거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압박감 등을 들 수 있겠지요. 삶의 여유가 사라지고 경쟁과 추월에 몰입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요.

그런 반면 교수님의 작품 속 한국의 풍경은 매우 밝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한국적인 무엇이 이런 색깔을 이끌어냈을까요.

그림을 시작한 초기에는 주로 어두운 색을 사용했지만 저는 따뜻한 색깔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물의 색을 기본으



bridge support Nanhuroad, 80x100cm, 2019

잉고 바움가르텐과 대화를 나눈 카페, 사폰사폰 남대문 본점 (메리어트 코트아드점)



로 하되 직관과 미적 감성을 반영해 색을 결정하고요. 햇빛이 비치거나 세월에 바랜 흔적 등에서 발견한 색을 기억해 두었다가 작품을 구성할 때 접목하기도 합니다.

작업실 벽을 많은 작품이 수놓고 있네요. 평소 작업 스타일이 궁금합니다.

이 작품 중에는 최근 완성한 것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저는 먼저 관찰을 통해 원석原石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수집합니다. 그다음 각각의 모티프나 주제가 지닌 잠재력을 검토하며 스케치합니다. 주제를 고르고 나면 구도와 비례감을 고민하고요. 비슷한 스케치를 여러 장 그려가며 변주해본 뒤 하나를 골라 캔버스에 본격적인 작업을 합니다. 여러 그림을 동시에 그리는 편인데 각각 다른 작업 단계에서 특정 색깔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죠. 이렇게 말하면 작업 공정이 아주 짜임새 있을 것 같지만 실은 색감과 촉감, 구조 모두 결국 직관과 미적 감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대학에서 강의하시며 한국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저는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해 아이디어 개발과 동시에 기술을 연마하길 바랍니다. 독일에 비해 한국 대학의 커리큘럼은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그 안에서 학생들은 자유를 누리면서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갈 방향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제를 내더라도 자신만의 해석과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를 남겨 영감을 깨우고자 해요.

아티스트에게 체력이란 집중력의 전제조건일 텐데 평소 어떻게 생활 리듬을 유지하시나요?

운동을 통한 체력 관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을 멀리하고 음주처럼 몸에 해로운 것도 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수준 높은 저널리즘 비평이나 강의를 접하며 마음과 정신을 수양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요. 제 작품의 근간이 되는 관찰력을 유지하려면 항상 침착해야 하고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가를 즐기고 적당히 게임을 피우며 일상에서 느긋한 틈을 만들지요. 인삼이 시원한 바람 소리, 물소리,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길 추천합니다.

초기 작품 스캔북. 작업이 뜻대로 안 풀릴 때마다 들춰보는 영감의 보고寶庫다.



그는 식물의 외형에 흥미를 느낀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직선과 곡선이 그의 작품에 반영된다.

Everyday Life and Perspective, and the Beauty of Staying in Place

These days, there has been a change to one facet of the architecture, structures and objects we encounter on a daily basis. The change is unveiled through the works of Ingo Baumgarten, a German painter known for turning the familiar into the strange and the mundane into the beautiful through his paintings. Listening to the language he conveys through the canvas, one suddenly finds oneself taking notice of things that they would normally be inclined to overlook.

Ingo Baumgarten focuses on objects that are ordinary but prominently affect the overall appearance of the space or the atmosphere of their surroundings. The things he puts on the canvas, including building tops, stairs outside buildings, door handles and busy entrances to metro stations, display a unique aesthetic and ambience.

"Architectural structures in a society embody the

society's culture and humanistic characteristics. I try to recast elements such as composition, colors and proportionality to give new aesthetic value to the ordinary spaces around us. I couldn't be happier if, through my paintings, people could view their daily lives from a new perspective."

When making a painting, he starts with observation. He first collects a wealth of elements that inspire him, such as colors, motifs and structures, by navigating around the city and then starts making sketches as he examines the potential of those elements. He usually works on multiple paintings simultaneously to test out the specific colors embodied in each work stage.

To carry out all the necessary processes properly, exceptional levels of stamina and concentration are required. When asked how he maintains the usual rhythm of his life, he said that he can do so through naturalness.

"I try to stay away as much as possible from environments that are stressful to my body and mind. I spend a lot of time training my mind by reading high-quality journalism, criticism and lectures. In order to maintain the observational power that forms the basis of my work, I need to be calm and open at all times. I tend to make time to relax in my daily life, enjoying leisure and even slacking off from time to time. Much like the way ginseng grows-hearing the sounds of cool wind, water and human footsteps-I also seek a life that is natural and affluent."

Ingo Baumgarten says he is interested in the appearance, intention, and functionality of the man-made world. Through the concept of visual anthropology, he follows and embodies the footsteps mankind makes as it advances its society. He has given us a fresh jolt by reinterpreting Korean buildings and structures from the 1970s and 1980s, and we can't wait to see with what other kinds of fresh perspectives he will surprise us within the future.

Thanks to

Cheong kwan Jang Sapoon Sapoon Cafe

operation hour 07:00~19:00

tel. 02-2211-8170

address 9, Namdaemun-ro, Jung-gu, Seoul, 04526, Korea

Instagram www.instagram.com/cafesapoonsapoon

